

서울시, 학생 종교인권 보장 ‘명문화’

학생의 종교인권보장을 명문화한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돼 주목을 끌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9일 ‘서울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에 대한 심의를 열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경기도, 광주광역시에 이어 전국 세 번째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은 학교 내 차별을 당하지 않을 권리, 종교 자유를 누릴 권리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종교의 자유에 따라 본인의 종교에 반하는 특정 종교과목의 수강이나 종교 행사참여를 거부할 수 있게 명시한 점이 눈에 띈다.

조례에 따르면 앞으로 학생에게 예배 등 종교적 행사의 참여나 기도 등 종교적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특정 종교를 비방하거나 선전하여 학생에게 종교적 편견을 일으키는 행위, 학생에게 특정 종교과

시의회, 학생인권조례안 통과

경기도 광주시에 이어 3번째

주민발의로 제정 의미 커

종자유정책研·대불청 등

불교시민단체 환영 논평

목의 수강을 강요하는 행위, 종교 과목의 대체과목에 대해 과제물의 부과나 시험을 실시해 대체과목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 특정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학생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차별행위 등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수업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한 종교차별 문제들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교내 집회의 자유, 두발·복장 전면 자율화, 간접제벌 금지 등도 담겼다.

학생인권조례 주요내용

- 특정종교 강요 금지
- 교내 집회의 자유
- 두발·복장 자율화
- 간접제벌 금지

불교시민사회단체들도 잇따라 “서울시민과 학생 노력이 결실을 맺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는 환영 논평을 발표했다.

종자유정책연구원은 지난 22일 “제정된 조례가 학교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실천지침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학생들이 심리적인 차원에서 자신들의 인권이 보호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학

교운영을 모색하고, 교육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감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앞서 대한불교청년회도 20일 “주민발의 형식을 통해 제출된 조례내용을 중심으로 제정된 것으로서 더욱 의미가 크다”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상시적인 종교 자유 침해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 및 관련된 홍보 활동을 전개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교총 등 63개 교원·학부모·시민단체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 지지 범국민연대’는 “조례 시행은 교육현장을 더욱 괴폐하게 만들 것”이라며 “교권추락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도 서울시의회가 수정·의결한 ‘학생인권조례’가 초·중·고교육법과 시행령 등 상위 법령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조계사 ‘동지헌말’ 나눔행사

서울 조계사(주지 토진스님)는 지난 22일 오전 일주문 일원에서 ‘동지헌말(冬至獻賸)’ 동지행사를 진행했다. 동지헌말은 동지 때 이웃에게 버선을 지어 선물하며, 서로의 행복을 빌었던 미풍양속으로 이날 신도와 시민들에게 따뜻한 차와 버섯모양이 새겨진 기념품을 전달했다. 또한 제3세계를 어린이를 위한 모금행사도 함께 진행했다.

신재호 기자

동국대 경주병원 ‘힐링센터’ 착공

양·한방 의료관광과 건강증진센터로 활용

동국대 경주캠퍼스와 한의과대학과 의과대학 시스템에 불교명상과 관광을 접목한 국제양한방합진 의료관광힐링(Healing)센터 건립에 나섰다.

동국대학교 경주병원(병원장 이경섭)은 지난 20일 ‘국제 양·한방 의료관광 및 힐링센터 착공식’을 진행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정련스님, 김희옥 동국대 총장, 김영중 경주캠퍼스 총장, 태석기 의무부총장, 최양식 경주시장 등 약 200여명이 참석했다.

경주병원 부지 내 조성되는 국제

양·한방 의료관광 및 힐링센터는 건강검진 및 현대의학과 대체요법을 통한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부지면적 813.59㎡(246평)에 건축면적 4,589.94㎡(1389평)로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이며, 도비 20억, 시비 20억, 병원 자체자금 30억 원을 투입해 내년 12월말에 준공할 예정이다.

1층부터 4층까지는 연구시설 및 건강증진센터로 운영되며, 5층과 6층은 힐링센터가 들어선다. 힐링센터에는 병원계 최초로 관계치유센터가 개설된다. 세계적인 관계치유전문가를 초빙해 이혼, 자살, 청소년

범죄, 스트레스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치료 및 상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피부과 전문의가 직접 진단하고 치료를 병행하는 메디컬스킨케어실과 종합검진·통합기능의학검사를 통해 개인별 건강과 체질에 맞는 식단을 제공하고 체할할 수 있는 힐링푸드체합장 등을 개설할 계획이다.

경주병원 관계자는 “국제 양·한방 의료관광 및 힐링센터는 지역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공간에서 편리하고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며 “고부가가치의 의료관광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어현경 기자 eonaldo@ibulgyo.com

불교방송, 승려복지기금 전달

뮤지컬 ‘원효’ 수익금 중 2000만원 보시

불교방송이 뮤지컬 원효 공연 수익금 가운데 2000만원을 승려노후복지기금으로 쾌척했다. 이채원 불교방송 사장은 지난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총무원장 자승스님에게 승려노후복지기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불교방송 이사장 영담스님은 “불교방송이 마련한 첫 뮤지컬 원효 공연의 수익금 가운데 일부인

2000만원을 승려노후복지기금으로 전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채원 사장은 “뮤지컬 원효가 불교문화콘텐츠를 활용했을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에게도 흥행을 거뒀는데 그 의미가 크다”면서 “앞으로 중국과 지방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도움을 많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뮤지컬 원효는 포교적인 측면과 더불어



수익창출 측면이 있는 만큼 열심히 준비하시기 바란다”면서 “힘겹게 마련한 기금을 승려노후복지기

금으로 전달해줘 고맙다”며 감사인사를 건넸다.

박인택 기자 parkintak@ibulgyo.com

제8호 사찰도서관 개관한

창원 봉림사에 불서 700권 기증

문화부 불출현, 22일 전달식

불교도서읽기 문화 확산을 위한 사찰도서관 확장 운동의 8번째 도서관으로 창원 봉림사 도서관이 개관돼 불서기증식이 지난 22일 열렸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와 불교출판문화협회의 공동 주관으로 봉림사에서 이날 봉행한 ‘부처님 글사랑, 사찰도서관 불서기증식’에서 불교출판문화협회 기증본 70여권

의 불서 및 기증서가 전달됐고, 총무원 문화국장 수진스님이 참석해 ‘부처님글사랑’ 현판도 부착했다.

8호 사찰도서관을 개관한 창원 봉림사(주지 지진스님)는 도시에 위치해 접근성이 수월하고 그간 어린이와 청소년을 넘어 다양한 계층의 신도들을 위한 포교·문화활동이 지속적으로 전개해와 사찰도서관이 지역문화운동에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찬 기자 kimj00@ibulgyo.com

불교중앙박물관 실무교육 실시

공로자 시상식도 가져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관장 흥선스님)은 국립중앙박물관 전문가를 초청 지난 14·15일 양일간 성보박물관 실무자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공로자 수상식을 거행했다.

불교중앙박물관에서 진행된 실무교육은 김홍식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의 문화재 보관과 포장에 관련된 이론 및 실습 강의와 중단 내 성보박물관들의 운영실태 및 업무현황을 공유를 통한 실무관리 교육 등이 실시됐다. 실무교육에는

해인사 성보박물관장 관암스님, 수덕사 근역성보관장 정암스님 등 18개 박물관 30여명의 실무자들이 참여했다. 특히 관장회의는 정부추치를 주도하는 불화의 명칭변경과 관련, 향후 면밀한 논의를 거쳐 중단차원의 입장 마련을 확인했다.

한편 조계종 중앙종회와 불교중앙박물관 및 문화부가 공동 진행했던 ‘성보박물관 실태조사’에 공로가 큰 통도사 성보박물관 학예실장 신용철, 송광사 성보박물관 학예연구사 김일동 씨 등에 대해 공로상을 수여했다.

김종찬 기자

“김정일 사망과 함께 남북갈등 털어내야”

화쟁리더스포럼, 법륜스님 초청 강연 개최

화쟁아카데미 교육수료자들의 모임인 화쟁리더스포럼(회장 이상훈)은 평화재단 이사장 법륜스님을 초청해 지난 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송년강연을 개최했다.

평화재단 이사장 법륜스님은 ‘화쟁사상과 불자의 사회적 역할’을 주제로 한 이날 강연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남북관계는 화쟁(和靜)과 중도(中道)의 관점에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일 시대는 남북 간 냉전의 종언을 의미하니, 그의 죽음과 함께 그간의 해묵은 갈등을 털어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

원효스님의 화쟁사상은 종파 불교가 윤행하던 삼국시대 말기,

남북 간 냉전의 종언

자발성과 집중, 지속성이

통찰력을 얻는 관건

이를 모두 수용하고 통합하기 위한 논리다. 법륜스님은 “종파들의 사상은 완전히 다른 듯하지만 구체적인 현실의 지평에서 보면 결국은 부처님의 진리라는 같은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화쟁은 욕망에 집착하는 쾌락과 욕망을 억제하는 고행이 아닌 제3의 길, 욕망으로부터의 자유를 추구하는 중도와 맥락이 닿는다.

이를 남북관계에 대입하면 “보수단체는 6·25사변 당시 국군포

로 송환을 주장하고 진보단체는 비전향 장기수를 북한으로 보내야 한다며 서로 충돌하고 있지만, 분단의 희생자란 관점에서 바라보면 결국 인도주의라는 점에서 본질이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문제와 관련된 ‘남남갈등’에 대해 “자신의 정치적 입장 때문에 실상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며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겠다는 식견과 용기가 부족하고 통일에 대한 열망도 없으니 꿈을 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화쟁의 현실적 모습을 “머느리의 하소연에서 시어머니의 심정을 알아내는 것”이라며 “자발성과 집중, 지속성이 통찰력을 얻는 관건”이라고 말했다.

장영섭 기자 tuel@ibulgyo.com

본·말사 주지 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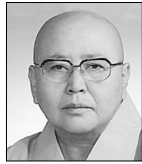
12월21일 종무회의의 결과



주광스님
사천 사리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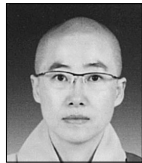
무염스님
천안 무운사



정봉스님
논산 죽림정사



원정스님
창원 정명사



개요스님
하동 대원사



진학스님
부안 내소사

“불교-유교 고전번역 활성화”

불교학술원-고전번역원, 업무협약 체결

고전번역의 활성화를 불교와 유교를 대표하는 두 연구기관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인환스님)은 한국고전번역원(원장 이동환)과 지난 20일 동국대 본관 로터스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고전번역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장경의 한글화를 이끌어온 불교학술원과 조선왕조실록 번역을 주도해온 고전번역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고전번역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마련 △불교와 유교 고전 역주 관련 연구 협력 및 인력 교류 △상호 연구정보와 자료교환 등을 추진해나가기로 합의했다.

특히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고전번역원은 우리 민족문화의 문화원형을 담고 있는 기록문화유산을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보고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고전번역원이 구축한 고

전종합DB에 동국대가 구축한 한글 대장경DB를 연동해 종합고전DB 구축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불교학술원 역시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해서 고전번역원의 협조를 받아 오는 2012년 3월부터 불교한 문헌전 연구를 위한 대학원과정과 불교한문어카데미 강좌를 개설하기로 했다.

불교학술원은 “이번 협약으로 고전번역 노하우 공유, 인력 교류 등 더 큰 시너지효과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우리나라 기록문화재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불교관련 고전문헌의 번역과 활용이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출연기관인 한국고전번역원은 40년 이상을 주로 유교 문헌의 번역사업과 한문 고전번역 인력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

엄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문화재청, 장도장 통영오광대 발탈 무형문화재보유자 ‘인정’

문화재청(청장 김찬)은 지난 9일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 회의의를 거쳐 박종근 씨를 중요무형문화재 제60호 ‘장도장’ 보유자로 인정했다. 이와 함께 △중요무형문화재 제6호 통영오광대 보유자에 김홍중 씨를 △중요무형문화재 제79호 발탈 보유자에 조영수 씨를 각각 인정 예고하기로 했다.

장도장(粧刀匠)은 절개를 상징하는 칼로 우리나라에서만 만들어졌던 독특한 모양의 칼로, 박종근 씨는 장도장 명예보유자인 박용기(朴龍基)의 아들로 장도를 제작하는 전통기술이 뛰어나 이번에 대를 이어 보유자가 됐다. 통영오광대는 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김홍중 씨는 통영오광대 보존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발에 탈을 쓰고 노는 놀이인 발탈 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조영숙 씨는 우리나라 장크계의 원로 이면서 발탈 재담의 전수교육조교로 활동하고 있다.

엄태규 기자